

농식품 산업 견인할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국내외 22개국서 326개 업체 참여... 발효식품 시장의 허브로서 위상 재확인

전북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성대한 막을 내렸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가 국내 발효식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세계화를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22개국에서 326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급 규모를 형성했다. 전 세계 식품 관련 바이어와 각국 대사관 관계자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현장을 찾으며 글로벌 발효식품 시장의 허브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B2B 수출 상담회에서는 총 554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창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시관은 전통 발효식품에서부터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가장간편식(HMR)까지 다채로운 제품들이 고

루 선보여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발효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조망한 '특별기획전시'는 발효식품의 본질과 세계적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 식품명인의 기술과 장인 정신을 선보인 전북식품명인대전, 그리고 지역 음식의 가치 재발견에 나선 제1회 전북한도음식홍보전은 국내외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며 지역 농식품 산업의 저력을 증명했다.

행사 기간 동안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뮤지컬 등 풍성한 문화공연도 펼쳐져 오감이 즐거운 축제로 거듭났다. 단

순한 전시를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체험형 축제로 자리 잡으며 발효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미 바이오진흥원 원장은 "이번 엑스포는 전북 농식품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발효식품을 지역 문화·산업과 결합한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제3차 혁신 기업 전략·지원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기업 육성 체계가 한층 더 정교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10월, '2025년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혁신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혁신기업 발전 방향과 지원체계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혁신기업 실무 담당자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해 혁신기업 육성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고히 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혁신기업 지원 사업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혁신기업 육성사업의 지원 성과와 자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면밀히 점검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와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지원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어 '2026년도 지원사업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방향을 심층 검토하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특히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실무자 네트워크 강화, 근로자 대상 전문 교육 확대 등 다양한 개선 과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2025년 혁신기업 지원사업 안내, △2026년도 지원사업 및 운영 논의, 등이 제시되었다.

/오상근 기자

전주지역 채소 가격, 지난해보다 전반적 상승세

배추·무·감자·대파·당근 모두 작년 대비 평균 20~50% 이상 올라

전북 전주시 내 주요 채소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조사한 10월 첫 주 전주시 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채소 가격 자료를 보면, 배추·무·감자·대파·당근 등 5대 채소 모두 1년 전 대비 평균 20% 이상 가격이 올랐다.

1포기 기준 배추 평균 가격은 4,09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45원에 비해 약 22.5% 상승했다. 최고가는 남부시장 6,000원으로 1년 전 4,000원에 비해 크게 올랐고, 최저가는 굿모닝마트 평화점 2,480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대형마트에서는 농협하나로클럽(4,280원)과 세이브존(3,980원)이 지난

해보다 가격이 올랐으며, 굿모닝마트만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 평균 가격은 2,219원으로 작년 1,816원 대비 22.2% 올랐다. 최고 가격은 롯데백화점 4,980원으로, 1년 전 2,980원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통시장인 중앙시장도 3,000원으로 지난해 2,000원보다 50% 가까이 올랐다. 할인 판매를 진행한 세이브존은 1,26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감자 가격은 지난해 4,633원에서 올해 3,676원으로 오히려 20.7% 하락했다. 최고가는 4,980원(롯데백화점), 최저가는 2,500원(모래내시장)으로 시장별 편차가 컸다. 대형마트는 대체로 가격이 하락했으나 롯데슈퍼 효자점

에서는 4,660원으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다.

대파 가격은 1년 전 6,698원에서 3,472원으로 약 48% 하락했으나 이는 평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고가 판매자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장별로는 중앙시장(5,000원), 남부시장(4,000원) 등 전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당근 평균 가격은 1,697원으로 전년 1,437원 대비 약 18% 상승했다. 최고가 롯데백화점은 5,100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남부시장 600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최저가를 유지했다. 대형마트 가격은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가래떡 데이'로 농업인의 날 기념... 미래세대에 응원·격려 전해

전북농협과 지역사회공헌단이 제80회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영생고등학교(교장 이장훈)에서 따뜻한 나눔과 응원의 의미를 담은 '가래떡 데이'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가래떡 데이는 우리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농업인의 날과



연계해 추진돼온 행사로, 11월 11일을 쌀로 만든 가래떡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날로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 전통은 해마다 이어지며 쌀 소비 촉진과 농업 가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정환 총괄본부장과 박병철 노조위원장 등 비롯한 전북농협 임직원, 영생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 광역브랜 드 쌀 '예답떡 십리향'로 만든 가래떡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수확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는 찹쌀떡을 전달하며 "노력의 결실을 꼭 이루길 바란다"고 응원 메시지를 더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오상근 기자

집목선인장, 글로벌 시장 두드린다

농진청, 4일간 신품종 평가회... 4개 수출 유망 계통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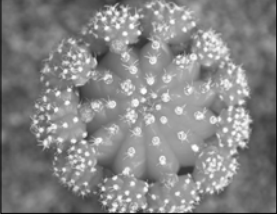
국산 화훼류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인 집목선인장이 새로운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연구 온실에서 신품종 집목선인장을 공개하는 신규 계통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집목선인장은 비모란을 삼각주 선인장에 접합해 만든 화훼류로, 꽃처럼 화려한 색깔과 독특한 형태로 해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품종 보급률 100%를 기록한 만큼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네덜란드·일본·호주 등 17개국에 279만 달러아치를 수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선인장 재배 농업인 수출업체, 화훼 연구자들이 참석해 △색상이 선명하고 △균형미가 뛰어나며 △수송성이 좋은 신계통 4종을 비롯해 '이홍', '연빛' 등 기존 인기 품종을 함께 살펴본다.

가장 주목받는 품종은 '원교 G1-360'으로 진한 붉은색이 선명하며 전체적인 균형미가 뛰어나다. 어미 선인장을 중심으로 자식 선인



장이 고르게 발달해 형태적 안정성이 높고, 증식력 또한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밝은 황색이 화사하게 돋보이는 '원교 G1-361', '원교 G1-362' 계통은 조직이 단단해 장거리 운송에 강해 수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영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기초기반과장은 "집목선인장은 국내 보급률이 높은 대표적 수출 작목으로, 국산 품종에 대한 농가의 신뢰도와 선호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이용자 1000만명 돌파

국민연금공단, 하루 조회량 8만4000 건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출시 8년 만에 누적 이용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의 연금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 앱은 24시간 민원 접수와 다양한 증명서 발급 기능을 제공하며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은 2017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꾸준한 기능 개선을 거듭해왔다. 특히 지난 5월 전면 개편 기술을 도입해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결과 이용자가 손쉽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 증가로 이어지며 앱의 신뢰성과 편리성을 입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단 업무의 상당 부분이 모바일에서 처리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루 평균 500건 넘는 신고·신청이 앱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관련 12종의 증명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15개 기관의 58종의 증명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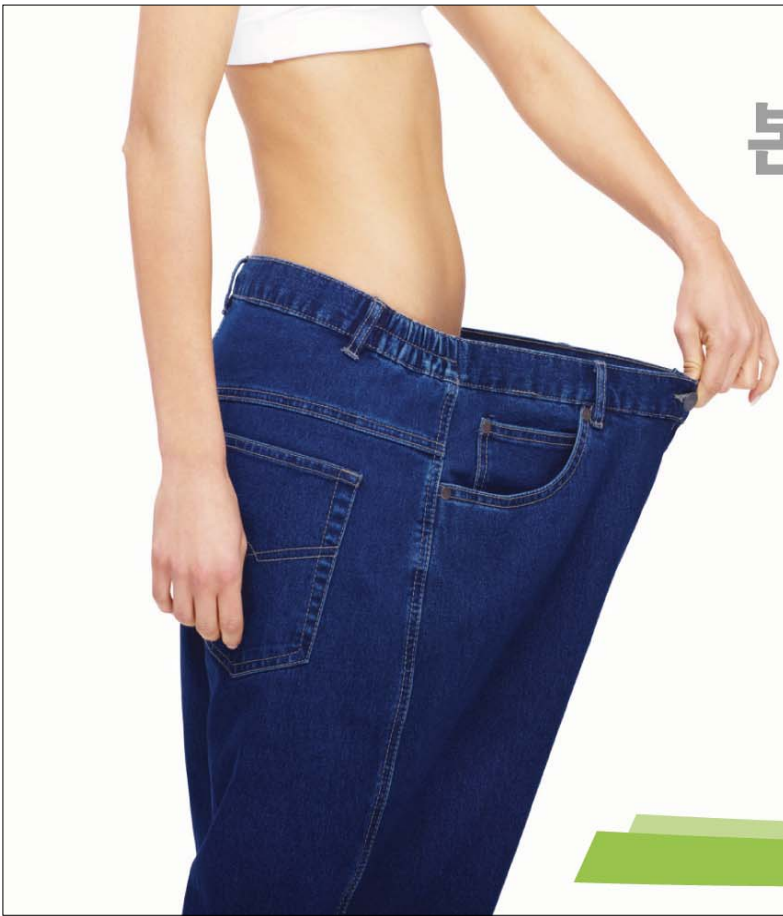
공공기관 앱 가운데 타 기관 증명서까지 통합 발급할 수 있는 사례는 국민연금공단이 처음이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 가입 여부, 급여 수급 상태 등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호평을 받고 있다. 필요한 제도 안내와 연금 정보를 이용자 특성에 맞춰 안내해 만족도를 높였으며, 이에 따라 앱의 하루 평균 조회량은 8만 4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 이사장은 "11월 중순에는 국민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며 "연금소득 연발정산 과정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더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